

STRATEGY 21

통권41호 Vol. 20, No.1, Spring 2017

美 해군의 해양전략 발전과 우리의 과제 - 항모운용을 중심으로 -

권영일*

I. 서론

II. 美 해양전략

1. 해양전략과 전략개념

2. 美 해양전략의 발전

가. 태동기

나. 제1차 세계대전기

다. 제2차 세계대전기

라. 냉전기

마. 탈냉전기

III. 美 해양전략과 한반도에서 항모운용 사례

IV. 향후 美 해군의 해양전략

V. 결론

* 해군중령, 해본 기참부정책실 대외정책담당.

I. 서론

韓美 동맹은 북한의 도발과 전쟁을 억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 민주화 등을 성취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韓美 동맹의 핵심은 동맹의 단호한 의지와 전투준비태세라는 무형의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전략무기로 통칭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공격적 하드웨어이다. 전략무기 중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항공모함(이하 항모)이 어디 있는가’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듯이 미국이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항모다.¹⁾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2017년 KR/FE 연습 기간 중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은 것은 미국 항모 칼 빈슨(Carl Vinson)함의 부산 입항이었다.²⁾ 언론에서는 중견국가의 공군력과 맞먹는다고 했지만, 실제 항모의 능력은 대부분의 중견국가 공군력을 능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작전을 할 수 있고, 전자전기, 폭격기, 전투기, 대잠헬기, 조기경보기 등 다양한 전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네트워크로 통합된 작전을 할 뿐만 아니라 이지스함 및 잠수함과도 함께 기동을 하기 때문이다. 칼 빈슨 항모는 미국 서부 샌디에고를 모항으로 하는 3함대 전력인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차원에서 한반도에 파견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항모를 증강 배치함으로써 동북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항모 혹은 항모급 전력 증강 구도 및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³⁾ 현재 중국은 라오닝함을 실전투입하기 위한 전력화 작업을 지

1) 클린턴 대통령은 국제적 위기시에 미국 대통령이 하는 첫 질문은 항모가 어디에 있는냐고 묻는 것이라고 했다. James Wiles, “Where are My Carriers,” *American Thinker*, www.americanthink.com/articles/2011/03/where_are_my_carriers.html (검색일, 2017.4.3)

2) 항모 이외에도 일본 이와쿠니에는 F-35B 10대가 지난 1월에 배치되었고, 6월까지 16대로 증강된다. F-22 전투기는 요코다 기지에 24대가 배치되었다. 괌에는 B-2 폭격기가 3대, B-1B 3대, B-52 등이 상시 출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칼빈슨함, F-35B 스텔스기… 미군, 한반도 주변 전진 배치” *중앙일보*, 2017.4.4

3) 트럼프 대통령은 Gerald Ford함 취역준비단에 대한 연설에서 “Ford급과 같은 새로운 항모는 미국의 힘을 원거리의 지역에 투사하는 해양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확장시킬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힘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힘을 사용한다면, 상대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임”이라고 언급했다. U.S. Navy, “President Trump Visits Pre-commissioning unit Gerald R. Ford,” <http://navylive.dodlive.mil/2017/03/03/president>

속하고 있으며 추가로 두 번째 항모를 건조하고 있고 향후 4척의 항모를 확보하고자 한다.⁴⁾ 일본은 이즈모함을 전력화하여 올 5월부터 7월까지 인도양 및 남중국해 등을 거쳐 본격적인 실전 투입 및 훈련을 감행하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⁵⁾ 또한, 이즈모함급 2번함인 가가함을 진수함으로써 항모급 전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으며 장차 이들 함정에 F-35B를 탑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한국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이 항모를 동원한 군사력 행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 해군(이하 美 해군)의 공격능력을 대표하는 핵심전력인 항모의 운용을 중심으로 美 해군의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美 해군 전략을 이해하고, 유사한 함정을 운용하는 주변국의 전략을 이해 및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美 해군 해양전략에서 항모는 어떻게 발전하였고 한반도에서 항모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주변국에서 항모 혹은 항모와 유사한 함형 보유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항모 혹은 항모급 함정이 향후 우리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대응과제는 무엇인지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해양전략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통해 전력투사의 중요성을 도출한다. 美 해군의 해양전략 발전 과정에서 전력투사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시기별로 위협, 전략개념, 수행 사례 및 문제점 측면에서 고찰한다.

-trump-visits-pre-commissioning-unit-gerald-ford-cvn-78/ (검색일, 2017.4.3)

- 4) 2017년 4월 23일 첫 자국산 항모 진수식을 앞둔 가운데 이번에는 해군 최대 강습상륙함 건조에 돌입했다. 075형 강습상륙함은 30대의 무장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고, 동시에 6대의 헬리콥터를 갑판에서 이륙시킬 수 있다. “중국, 해군굴기 박차… 초대형 강습상륙함 건조 착수,” 『세계일보』, (2017년 3월 31일). 중국의 전략 및 논리에 대한 자료는 Captain Sukjoon Yoon, “Decoding China’s Maritime,” *Proceedings*, Vol. 143/3/1, p.369 참고.
- 5) 이즈모함은 기준톤수가 19,500톤이고 만재톤수는 27,000톤이며 전장은 248m에 달한다. 가스터빈 4대를 사용하며 최고속력은 30노트이다. 헬기는 최대 14대를 탑재하고 동시에 5대를 이착륙시킬 수 있다. 승조원은 470명이며 별도로 450명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작전운용기간이 4개월 고려 자위대가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면 세계 어느 곳으로도 전개가 가능하다.

II. 美 해양전략

1. 해양전략과 전략개념

국가전략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적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국가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보역량 중에서도 군사차원의 방법을 운용하는 것이 군사전략이며 경제, 문화 차원의 역량을 사용하는 방법은 각각 경제전략과 문화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안보 분야의 제 역량들은 상호 구분된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경제적 역량이 증가할 경우 군사적 역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문화적 역량이 증가한다면 전략문화의 발전 등을 고려 군사적 역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칼 빈슨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역량은 증가했지만, 우리의 경제적 역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전략을 시기별로 구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같은 시대에도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듯이 시간의 흐름도 이러한 변수의 영향으로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목적상 시기를 구분하여 이해를 돕고,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해양전략은 군사전략의 하부개념으로서 해양분야의 제반 역량을 활용하여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해양전략은 정치, 외교, 군사, 과학기술 등 상위의 다양한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각 요소 간 협조관계가 부재하기도 한다. 해양전략은 평시의 외교, 통상의 보호, 어업, 해저 자원 개발, 보호, EEZ 방어 및 규제화, 연안 방어, 해양경계 획정, 도서 방어, 해양 관련 국제 규범 참여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⁶⁾ 뿐만 아니라, 군간 합동작전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해양전략은 해상에서의 독립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상륙작전과 같이 지·해·공 전력이 함께 작전을 하는 경우처럼 복합적이면서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한다. 해상, 지상, 공중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시 해양전략의 개념은 해군만으로 제한시키기보다는 해경, 해병대 등과의 합동작전 개념을 포함시켜야 된다.

美 해양전략은 미국의 국가전략의 하부개념으로서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

6) John Hattendorf, "What is a Maritime Strategy?" Royal Australian Navy, *Soundings*, No.1, October 2013, www.navy.gov.au/spc (검색일, 2017.4.7).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천혜의 지리적 요건을 구비하여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해군력에 기반하여 해외식민지 개척에 동참하는 등 공세적인 해양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양통제의 개념에선 지상 및 해상에 대한 전력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따라서, 美 해군의 해양전략의 역사를 살펴볼 때 전력투사의 개념이 어떻게 태동하였고, 유지되거나 혹은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美 해양전략의 발전

해양전략이론의 태동에 대해서 범선의 시대에도 존재했다는 등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지만,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알프레드 마한의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과 같이 군사이론을 역사적 사례에 적용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본 연구에서도 근대 이후의 해양전략 발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는 美 해군 해양전략의 태동과 일치한다는 측면도 있어 연구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가. 태동기

19세기 후반까지 미국은 지리적 특성상 위협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 강대국들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대한 식민지배 구도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독일과 일본이 뒤늦게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시기였는데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천연의 방어막이 형성되어 있어 유럽 강대국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해군의 전략개념은 연안방어였으며 이러한 방어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뢰를 장착한 함정 확보에 주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안보환경은 산업혁명과 과학의 진보에 따른 증기선의 출현과 석탄을 공급하기 위한 균형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강대국 함정이 미국의 영토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적 위협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클라우제비츠의 결전사상을 해전개념에 도입한 마한은 전쟁을 위한 함대의 부활을 역설했다. 그는 영국의 제

해권 역사를 바탕으로 美 해군의 발전가능성을 간과하고 방어적인 개념보다는 해상에서의 결전을 통한 공세적 주도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적의 상선단을 격침시키는 순양함보다는 가장 크고 강력한 전함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강대국간 거함거포주의를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함정의 추진력과 포의 사거리의 증가는 원해에서도 작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석탄을 이용한 증기엔진에서 경유를 이용한 디젤엔진으로의 발전은 함정의 안정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과학기술을 이용한 미국의 산업성장과 경제력의 증가는 美 국민들의 자부심을 고양시켰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시켰다. 이러한 여론에 부합하는 것은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미국 내에서도 해군력의 건설에 공감대를 형성한 집단(navalists)이 형성되어, 그 결과 해군력 증강을 위한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었다.⁷⁾ 그 결과 해군력은 증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그리고 괌을 지배하게 되었다. 1899년에는 하와이 제도를 합병하였으며, 동부 사모아를 지배하게 되었고, 웨이크섬을 점령했다.

그러나 해군은 두 가지의 전략적 도그마(dogma)에 봉착했다. 하나는 대서양에 집중을 요구하는 마한의 전략적 집중을 수용할지 여부였고, 다른 하나는 태평양에 관심을 갖게 된 근본배경인 경제적 경쟁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했다.⁸⁾ 해군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전함의 일부는 태평양에, 나머지 일부는 대서양에 배치했다. 세력집중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함대의 분할에 개탄했지만, 1900년 이후 미국은 주적을 독일로 보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1906년 태평양 함대의 모든 전함을 대서양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해군력을 보유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공격적인 해양통제에 의견일치를 이루고 해군력을 전투함대에 집결시킨 국가를 상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05년에 발생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격파했을 때 일본은 미국의 잠재적 적국이 되어 버렸다. 美 해군은 서태평양에 안전한 기지를 중국 본토에서 찾고자 했지만 실패하자 필리핀의 수빅만을 대체항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요약하자면 태동기 美 해군은 유럽 강대국들의 위협에 대항하고 태평양에

7) Mark Shulman, *Navalism and the Emergence of American Sea Power* (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95), p.2.

8) George Baer 저, 김주식 역, 『미국 해군 100년사』 (서울 : 해양전략연구소, 2005), p.62.

서 경제적 이익을 구사하기 위해 당시 유럽 강대국들과 유사한 함대결전, 원해 항해시 필요한 석탄공급지 확보와 같은 공세적 전략개념에 기반한 함포 위주의 전력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개념을 구상하기까지 마한의 저서가 큰 영향을 미쳤으나, 그의 개념이 그대로 美 해군에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자면, 함대 결전을 위한 전력의 집중은 대서양에 함대를 집결해 놓은 상태로 태평양에 대해서는 대응능력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러·일 전쟁 이후 등장한 일본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美 해군은 태동기부터 전략적 환경과 이론, 경제적 부 및 국민적 성원을 바탕으로 강대국 해군으로 부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세계 최강 영국 해군의 지위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나. 제1차 세계대전기

미국은 1913년 독일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흑색 전쟁계획(War Plan Black)을 준비하였다. 1914년에는 일본을 대상으로 오렌지 전쟁계획(War Plan Orange)을 발전시켰다. 1915년 7월 독일이 루시타니아(Lusitania)호를 침몰시킴으로써 윌슨 대통령은 해군을 확장시킬 명분을 얻었고 “영국보다 더 큰 규모의 해군을 건설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⁹⁾ 영국과 독일간의 해전인 유틀란드(Jutland) 해전 다음 날, 윌슨 대통령은 해전의 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모든 유형의 함정 156척이 1919년 7월에 건조를 시작하여 1923년까지 완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계획의 핵심은 제1차 세계대전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도 미국의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개념이 포함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공세적인 전략개념에도 불구하고 잠수함의 건조 및 운용 개념, 대서양에 치우친 전쟁계획, 기습과 통상파괴전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되지 않았다. 1916년의 건조계획에 포함된 30척의 잠수함은 해안방어용이었다. 독일이 초기에 무제한 잠수함전을 전개하여 폭풍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1917년까지 U보트로 미국 함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독일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었다. 독일은 대형전함이 아닌 소형 잠수함을 갖고서 영국의 해양이용권을 빼앗아 버렸다. 또한, 독일의 대양함대는 항구에 머물러 있

9) *Ibid.*, p.110.

어 결전이 불가능했고, 미국과 결전을 할 이유가 없었다. 전함이 아니라 해상 수송력과 같은 해양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었다. 선단을 호송하는 것은 해양통제를 다시 정의 하는 것, 즉 바다가 전투나 초계활동에 의해 깨끗하게 청소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해군에서 필요한 것은 균형(balance)이었다. 전함을 건조하는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잠수함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구축함이 필요했다. 구축함은 기뢰를 보유하면서 선단 호송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호송선단은 전쟁수행을 위한 보급품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요약하자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마한의 함대결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무기체계인 잠수함이 전쟁양상을 주도했다. 전쟁에서 상대국의 전략개념을 능가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개발 및 운용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발전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전력건설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해양통제가 결전을 통한 적의 섬멸이 아니라 해양수송의 지속과 같은 전쟁지속 능력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변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균형된 전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로운 무기체계로서 1912년에 최초의 항모가 등장한 것이다.¹⁰⁾

다. 제2차 세계대전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가 정착된 시기에 국가의 운명이 해양에 의해 좌우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함대는 국가가 보유한 강대국의 지위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했고, 해군력은 미국에게 전략적 독립성을 제공했다. 이러한 美 해군력의 중심은 전함(battleship)이었다. 미국은 1919년 해군의 주요 전투부대를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나누었다. 태평양에 해군력을 배비한 목적은 일본의 활동범위를 미크로네시아군도로 제한하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진주만과 괌, 그리고 필리핀의 거점들처럼 요새화된 섬 기지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해군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연료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뀐 것이었다. 그 결과

10) 영국에서 함정의 건조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여객선으로 건조 중이던 배를 Argus라는 해상항공기 탑재함으로 개조하였다. Argus함은 14,000톤으로서 20대의 항공기를 탑재하였으며, Furious함은 1917년 영국의 전함으로 건조되었으나 개조 및 개선 과정을 거쳐 1939년 22,450톤의 배수량에 33대의 항공기 탑재함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이르러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모양을 갖춘 항모가 등장한 것이다.

보다 긴 항속거리와 연료보급의 용이성을 달성하게 해주었다. 1924년 소장으로서 진급한 쇼필드 제독은 미국이 英·日 동맹에 맞서 두 대양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보고 “태평양에서는 전략적인 공격을 위해 그리고 대서양에서는 전략적인 방어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¹¹⁾

하지만, 워싱턴 조약 체결 이후 강력한 함정으로 명명된 10,000톤 그 이상의 전함과 전투순양함 또는 구경이 8인치 이상인 함포를 탑재한 함정에 적용되었는데 美 해군에는 18척만 남아 있었다. 항모의 경우에는 그 등급에 대한 최대한의 배수톤수가 정해져 있었지만, 척수에는 제한이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서 항모는 다양하게 개발되었는데 대체로 2만 톤 전후의 배수량에 20~30대의 항공기를 탑재하였다. 항모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상에서의 해전을 통하여 해상전투의 주력함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41년 12월 7일에 항모는 미국 해군의 주력함이 되었다. 그 달에는 모두 521대의 항공기를 탑재한 8척의 항모가 있었다. 그로부터 4년 후 대일전승기념일에는 대형항모 28척과 소형항모 17척을 취역시켰으며, 해군 항공대는 41,272대의 항공기를 지휘하였다. 당시는 프로펠러 항공기용 항모이었으며 추진방식도 증기추진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시 미국과 영국의 기획참모진은 유럽을 우선시하고 공동의 적에 대해 연합전쟁을 하도록 수립된 ‘플랜 독(Plan Dog)’의 개념을 수용했으며, 루즈벨트도 최소한 유럽을 우선시하는 입장이 수용되는 한 계획을 승인했다. 1941년 여름에 미국은 일본에 대한 봉쇄정책을 시행할 만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전쟁이 시작된 지 4년이 채 못 되어 세계 해양의 주인이 되었으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양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1945년 8월이 될 때까지 5년 동안에 美 해군은 인원이 거의 20배, 함정의 톤수가 6배, 함정 척수가 60배, 항공기의 대수가 24배로 각각 증가하여 해군은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어떤 해역에서도 공격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다.¹²⁾ 이러한 함대의 전투부대와 정찰부대를 가지고 몇 개의 기동함대를 재조직했는데, 각 기동함대의 중앙에는 전함(battleship)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항모를 배치했다. 1942년 6월 미드웨이(Midway)해전에서 전함의 함포사격능력 대신 항공기의 기동성과 장거리 기습능력을 이용했다. 그리하여 30년 이상 해군의 사고와 계획의 중심에 위치해 온 전투함대는 조용히 사라졌다.

요약하자면, 해군은 국력에 걸맞고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전함을 유지

11) 김주식(2005), *Op.cit.*, p.203.

12) 김주식(2005), p.339.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항모와 잠수함의 설계와 교리를 발전시켰다. 대서양에서는 독일에 대항해야 하였고 태평양에서는 일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구비해야만 했다. 미국은 압도적인 전쟁동원 및 지속 능력을 바탕으로 두 대양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 태평양에서 항모는 전함의 위치를 완벽히 대체하여 전쟁 승리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해군만의 전쟁논리에 몰입되어 있었고, 해병대의 상륙공격논리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가 해군의 전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등 내재적 문제는 존재하였다.

라. 냉전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美 해군의 해양전략 발전에 대한 도전요소가 세 가지 등장했다. 첫째, 비대해진 국방분야에 대한 국민의 감축 여론이 증가에 따른 국방부의 예산 감축 기조였다. 둘째, 美공군의 창설은 항모에 대한 무용론을 초래했다. 셋째, 전략적 중요성과 예산상의 이점을 가진 놀라운 무기인 핵폭탄에 대해 美 해군은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위협이 대두된 상황에서 포레스탈(Forrestal) 국방장관은 서방세력의 약화가 유화정책을 유도하고 유화정책이 침략을 조장할 것이라는 점을 염려하여 소련에 대한 봉쇄(blockade)를 열렬히 지지하였다. 봉쇄는 군대의 증강을 의미했다. 무엇보다도 해군은 어떤 지역에 고정되어 배치되지 않고서도 분쟁지역에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해군참모총장이었던 니미츠(Nimitz) 제독은 해양통제를 ‘군사력 투사(power projection)’와 연관시켰다. 물론 마한에게 전투함대의 대규모 교전은 뒤이은 봉쇄와 육군의 상륙작전 지원을 위해 길을 열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50년 동안 마한식 결전 이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해전이 해군 자체만의 능력으로 전쟁을 결말지은 것처럼 해군 전략을 독자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해군의 전략은 오래 걸리는 전쟁을 염두에 두었고 전쟁을 단기적인 핵사용과 다른 관점에서 좀 더 광범위하고 보다 나은 의미에서 해양전략은 육상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쟁은 소모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소모전에서는 해양통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 될 것이었다. 해군 지도층은 해군 항공기를 후자의 견해에 접목시키기를 희망했다.

군사력 투사 개념과 항모의 역할을 연관시킨 것은 셔먼(Sherman) 제독인

데, 그는 美 해군은 전진배치(forward presence)와 공격전략의 전통에 기반하여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부대가 필요하며 작전의 중심에 항모를 위치시키고 전통적인 무기나 핵무기의 수송 선택권을 항모에게 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전진배치된 고가의 항모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깊숙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항공타격이 필수적이었다. ‘근원지에 대한 공격’ 논리는 해전만큼이나 오래된 관행적인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자신의 입장을 당대에 확정할 필요가 있었을 때 해군 전략개념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1947년 국가안보법(NSA, National Security Act)은 해군 조종사에 대한 공군의 지배를 부정하였기 때문에 해군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美 해군은 해양통제 기능과 관련된 항모 함재기와 육상기지 항공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군은 제해권 덕분에 소련을 둘러싸고 있는 내륙과 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는 동맹국을 지원할 수 있었다. 터키, 남부 유럽, 수에즈, 스페인, 아이슬란드, 일본, 필리핀이 지원대상국이었다.

6·25전쟁의 발발은 항모 기동부대를 중심으로 한 널리 분산되어 전진배치된 함대들로 이루어진 다양하고도 세계적인 군으로서의 해군의 가치를 입증한 사례가 되었다. 함대들은 해양통제, 대잠전, 상륙작전, 해안 목표물에 대한 재래식 기습과 공중강습을 통해 기습 등과 같은 많은 공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해군 항공부대와 해병대는 6·25를 수행하면서 미래에 해군의 한 부분으로서 다시는 도전받지 않을 귀중하고 돋보이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제한전과 장기전에서 해양력의 개념적 그리고 작전상의 가치를 입증하였다.¹³⁾

美 해군과 핵무기의 역할에 대한 문제는 버크(Burke) 제독이 해결하였다. 그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국방예산을 실제로 차지할 수 있는 수단을 핵무기로 이해했다. 항모에서 핵무기를 장착한 전투기를 운용할 뿐만 아니라 핵잠수함에서 폴라리스 중거리탄도탄 발사 프로그램을 성공시켜 공격력과 억제력에 기반한 전략적 해군 건설을 달성하였다. 버크는 전략공군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제한된 억제력(finite deferenc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강력한 함대를 주장했던 버크는 경사갑판(angle-deck)과 증기 사출장치(catapult)를 보유한 포레스탈급 항모를 획득하여 중무장 공격용 핵무기까지 발사 가능

13) 김주식(2005), p.588. 구소련의 잠수함 중심의 해양거부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美 해군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다. 첫 번째는 해상에서 잠수함을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대잠공격부대에 의한 지구전 전략이었다. 둘째는 방어선전략으로 소련 함정이 대양으로 나가기 위해 지나야만 하는 해협에서 기다렸다. 세 번째는 항모 항공력에 의한 공격이었는데, 이 공격은 항공 핵부대를 위한 합리적인 해양통제였다.

한 12대의 항공기를 탑재하였다.

그러나 그는 핵무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 항모는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기지역에서 쉽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었다. 항모의 탑재기는 어떤 미사일 시스템과도 필적할 수 없는 균형감각과 정확성을 보유한 무기들을 운반할 수 있었다. 육상기지와 해상기지의 장거리 미사일과 전략공군사령부의 유인폭격기부대가 제한전에 적합하지 않고 또한 제한전을 위해 배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버크는 해군의 타격용 항모와 해병의 공격부대가 이제 국가의 ‘창끝(point of spear)’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어떤 해외개입에도 해양통제를 필요로 했다.

케네디 행정부는 구소련에 대한 봉쇄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두 가지의 전략 개념을 추구했다. 하나는 자신감이 있는 파멸위협에 의한 핵전쟁의 억제력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유연반응으로 불리는 전략이었다. 핵에 대한 억제력은 3축(triad)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여 전략적 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잠수함의 개발로 이어졌다. 유연반응전략은 재래식 전력으로 하여금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도전에 응하며 가능하다면 초기에 재래식 도전에 대응할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해군은 이미 어느 곳이나 도달할 수 있고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제한전과 재래식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기간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다양한 작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해군의 유연성을 입증해 주는 것은 속력이었으며, 1962년에 쿠바를 봉쇄하는 데에도 그 신속성 때문에 성공했다.

요약하자면, 美 해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방예산 감축, 예산에 대한 통제 강화, 핵무기 통제권 등 해군에 도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해양통제의 중요성, 유연 반응, 지상에 대한 군사력 투사라는 개념을 구소련을 대상으로 발전시켰다. 군사력 투사와 관련하여 1982년에 발간된 해양전략은 공지전투개념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적에 대한 파괴는 초기에 기습을 이용한 강력한 타격을 통하여 적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어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공격을 해야 한다”는 공세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헤이워드(Hayward) 해군참모총장은 전쟁 초기 적의 해상전력을 격멸하여 우군의 작전 여건 및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⁴⁾ 또한, 헌팅턴은 증가하는 적의 잠수함 위협에 대해서 대잠전을 주요 작전으로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해군의 고

14) Lisle Rose, *Power At Sea* (Columbia :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2007), p.210.

유 임무는 지상에 대한 공격작전이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6년에 발간된 해양전략에서 해군의 주된 임무는 구소련에 대한 전투수행으로 명시되었듯이 해군의 임무는 군사력 투사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마. 탈냉전기

미국은 2002년에 발간한 ‘Sea Power 21’에서 주된 위협국가를 중국과 극단적 폭력주의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적들에 대한 전략개념은 전장에서 신뢰할 만한 전투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억제하며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개념 구현을 위해 3축으로 ‘Sea Strike(해상 타격), Sea Shield(해상 방어), Sea Base(해상 기반)’를 구축하고 이를 ‘FORCEnet’을 통해 탐지체계, 네트워크, 무기, 플랫폼을 통합하고자 했다. 중국에 대한 위협을 상정한 또 다른 전략문서는 2006년에 발간한 ‘Navy Operations Concept’와 ‘Navy Strategic Plan’의 ‘GWOT(Global War on Terror)’ 개념이다. 미국이 테러에 대한 위협 대처에 집중하고 있을 때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듬해에 발간된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에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 공공재(common goods) 보호를 위한 다국적 협력 강화와 통합안보를 위한 노력에 대한 개념을 부각시켰다. 2010년에 발간된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도 비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국제적 파트너십 발전을 통해 공공재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시퀘스터 도입과 연계하여 국방부 감축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중국 견제 노력에도 한계는 존재한다는 이 중고를 겪었다. 첫째, 안보공약이 분산되어 있다. 이는 안보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자산의 분산을 초래한다. 둘째, 위협에 대한 예측이 불가하여 대비가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의 공격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ISR(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능력과 핵능력뿐만 아니라 대함미사일과 핵잠수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모의 능력을 빠르게 증가시켜 나가고 있었다. 美 해군 참모총장 리차드슨(Richardson) 제독은 2016년 10월 3일자 ‘DEFENSE NEWS’ 주최 강연에서 중국 해군의 위협을 보다 심각하고 공격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차원에서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 Denial)라는 방어적 용어의 사용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태평양 수상전력사(Surface

Forces Command)의 로덴(RODEN) 제독은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이라는 전략개념을 소개했다.¹⁵⁾ 내용은 개별 함정의 공격력을 증강시켜 네트워크화된 분산 공격진형을 취하는 것에 의해 적의 수색 및 추격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공격 밀도를 낮추고 항모탑재 항공기의 지원 없이도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美 해군 수상함이 3~4척 규모의 수상전투단으로 분산되어 활동하면 잠재적 위협국의 아군에 대한 공격능력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아군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해양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美 해군 수상부대는 이 개념을 기초로 ‘Hunter Killer / SAG(Surface Action Group)’ 부대에 의한 훈련을 최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발전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중국 항모기동부대의 작전 가능해역으로 美 해군 항모부대는 육상 및 수상, 수중, 그리고 공중으로부터의 미사일 위협에 의해 이들 해협에서 작전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발전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군사력 투사를 위한 핵심 전력 확보가 우선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5년 8월에 공개된 ‘Maritime Security Strategy to Achieve U.S. Objectives’에서 미국은 첫째, 해양영역(maritime domain)에서의 美 군사능력 강화, 둘째, 동맹국과 우방국의 군사역량 강화, 셋째, 위협 감소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군사외교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공개되고 효과적인 지역 안보제도 발전을 주 노력선으로 지정하고 해양영역에서의 미국의 군사능력 강화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놓았다. 이는 필요시 결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항모를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항모로 대체하고 줌왈트(Zumwalt)급 구축함과 아메리카(America)급 상륙함을 역내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현실화됨에 따라 미국은 태평양에 배치된 3함대 전력을 7함대해역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태평양함대사령관인 스위프트 제독은 이러한 개념을 구체화하여 2017년 KR/FE 연습시 3함대 소속 제1 항모강습단을 한반도 전구에 투입하였다. 2017년 1월에 발간된 ‘Surface Forces Strategy’에서는 항모가 투입되었지만, 수상전력은 패키지화되고 분산되며 개별함정은 무장의 파괴력을 증가시켜 대응하도록 하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아직 3함대 항모가 7함대

15) Thomas Roden et al., “Distributed Lethality,” *Proceedings*, No.1, 2015, <https://m.usni.org/magazines/proceedings/2015-01/distributed-lethality> (검색일, 2017.4.1).

해역에 진입시 지휘관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동북아에서 美 해군 항모의 전력은 증가하게 되었고 동맹국 해군 간의 상호운용성을 증가시켜 동맹의 군사적 대응능력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Ⅲ. 美 해양전략과 한반도에서 항모운용 사례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은 기습남침을 통한 한반도 공산화를 노렸을 당시 美 국방장관이던 존슨(Johnson)은 미군에서 몇 개의 B-36 전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美 해군과 해병대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6·25에서 해양통제의 중요성은 인천상륙작전에서 그 빛을 발하였다. 맥아더는 “해군과 해병대가 오늘 아침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 보인 적은 없었다”고 전문을 보냈다.¹⁶⁾ 미군과 유엔군은 강력한 해양통제권의 행사를 통해 침략을 저지했으며, 분명히 승리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힘은 국력의 한 국면에 불과할 뿐이며, 그 힘만으로는 한국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힘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패배했을 것이다.¹⁷⁾

해양통제권과 제공권이 장악된 상태에서 美 해군은 인천상륙작전, 북한군에 대한 육상보급로 차단 등 지상에 대한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었다. 해군과 해병대의 유효성은 입증되어 공군력만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존슨 국방장관은 경질되었다. 1951년 美 해군은 포레스탈(Forrestal)급 항모의 건조에 착수했다. 이어서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유사한 항모의 건조로 이어졌다. 1961년도에는 핵추진 항모인 엔트프라이즈(Enterprise)급 항모가 건조되었고 1975년도에는 니미츠(Nimitz)급 항모가 건조되었다. 핵항모는 연료재 보급 없이 13년간 작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¹⁸⁾ 이러한 항모들은 공격과 지원 기능뿐만 아니라 적의 핵공격시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전투기를 탑재하고 반격할 수 있다는 점은 강한 억제력으로 작용했다. 해병대는 항공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해군은 공격력을 보유한 함정을 건조할 수 있었다. 대표적

16) James Field 저, 김주식(옮김),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서울: 해양전략연구소, 2013), p.xi.

17) 김주식(2013), p. xiii.

18) E.B. Potter, *Sea Power : A Naval History* (Annapolis : U.S. Naval Institute Press, 1981), p.369.

인 함정이 상륙강습함이다. 1960년대에는 이오지마(Iwo Jima)급 상륙강습함이 건조되었는데, 1개 대대를 공중으로 강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1970년대에는 타라와(Tarawa)급 강습상륙함이 전력화하였고 이 함정에는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탑재하여 공격력을 증가시켰다.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항모가 한반도 해역에 전개하였다. 위기 중에서도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발생한 도끼 만행사건은 6·25전쟁 이후 최악의 전쟁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하자 포드(Ford) 대통령은 즉각 북한측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워싱턴 특별회의를 소집했다.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은 결렬되었고 워싱턴 국가안보회의는 ‘데프콘 III’을 발령했다. 1976년 8월 21일 미국 보토와 대한민국의 주변국에 주둔한 미군 기지에서 ‘폴버너 작전(Operation Paul Bunyan)’을 시행했는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공대지 핵미사일(AGM-69 SRAM),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재기 65대를 탑재한 미드웨이(Midway) 항모와 순양함 5척이 서해안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 이후 美 항모의 서해안 진입은 중국과의 갈등을 일으켰다. 중국은 서해가 한 국가가 힘자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며 만약 미국의 핵 추진 항모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함이 韓美연합훈련에 참가한다면 베이징(北京)과 텐진(天津) 같은 중요 도시와 동부연안의 경제발전 지역들이 미군의 군사적인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美측은 한반도에 핵추진 항모, 핵추진 공격잠수함, 장거리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를 전개시켰다. 장거리 폭격기가 항공기의 특성상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하는 반면, 항모는 기동시간 고려 韓美연합훈련이나 국제관함식 등 공식적인 훈련 및 행사에 참가하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예를 들자면, 2017년에는 KR/FE가 종료된 이후에도 칼 빈슨 항모강습단은 한반도에 전개되어 북한의 위기 고조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인 억제 및 대응역할에 한 축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약하자면, 6·25 당시 美 해군이 완벽히 확보했던 해양통제는 중국의 국력 성장 및 해군력 강화와 맞물려 상당부분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천안함 침몰 이후 美 해군 항모가 서해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항모의 운용과 추가 건조를 통해 향후 서해를 내해화할 것이며 자국 어선 보호 명목으로 공세적 행보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6·25 당시 수행했던 美 해군의 역할과 해양통제 능력은 부분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중국의 항모뿐만 아니라 수상함, 잠수함, 상륙함, 정보함 등이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상륙작전, 대잠전, 대공전 등에서도 동맹의 전쟁수행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주도의 통일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육상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IV. 향후 美 해군의 해양전략

美 해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美 해군은 단독으로 전 세계의 위기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007년 당시 美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멀린(Mullen) 제독은 美 해군만이 아닌 동맹 및 파트너의 해군을 포함하는 '1,000 ship Navy'를 천명하고 동맹 및 우방국과의 군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이러한 사항은 2015년 8월에 공개된 'Maritime Security Strategy to Achieve U.S. Objectives'에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국의 영토 위협에 대응하고, 역내 전반에 걸쳐 해양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맹과 우방국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이다. 또한 능력 제공뿐만 아니라, 관련국의 기반시설, 군수지원, 관련제도를 강화하고, 전력 운용 및 유지에 필요한 실전적 기술 발전에도 노력 집중하지만, 미군은 향후에도 당분간은 어느 해군과도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美 해군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작전을 해야 한다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거리의 횡포(Tyranny of Distance)' 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특히,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다양화하는 시점에서 즉각적 대응을 요구하는 한국에게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개전 초 핵과 미사일 능력을 사용하여 조기에 주도권을 장악하여 협상 및 휴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6·25와 같이 미래 한반도 전쟁은 장기화된다는 것인데 美 해군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전쟁 장기화가 반드시 미국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북한은 주일 미군기지, 일본, 미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협을 가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전략자산의 전개를 통해 북한에 대해 단호한 韓美 동맹의 의지를 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지상의 전장이 고립될 경우 항모와 같이 해상 어디에서든지 공격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력이 무엇보다도 유용할 것이다.

둘째, 전쟁 초기 한국군의 생존성을 극대화시키고, 이후 작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격력 및 작전수행능력 뿐만 아니라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6·25 당시 미군에 맡겨진 전시작전권은 미군이 주도하여 전쟁을 수행한 것이지만, 이제는 한국군의 능력이 향상되었고,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는 분야를 식별하여 韓美 해군 간 승수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제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엔사 전력제공국들과도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전력전개가 가능하도록 연습을 강화해야 한다. 유엔사 후방기지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건설적 유도방향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 한국군의 생존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은밀성과 생존성을 향상시키고 전략적으로 파괴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무기를 수상과 수중에도 배치해야 한다.

V. 결론

항모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을 겪어 왔다. 그 이유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강대국만이 항모 혹은 유사한 전력을 보유해 오고 있다. 항모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자부심과 긍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美 해군은 이러한 가치를 잘 알기에 항모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느 나라도 美 해군의 항모에 대적할 만한 능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초기 주도권을 상실한다면 이후에 공격력은 美 증원군이 올 때까지 동맹의 현존 전력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美 증원군의 도착은 중국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도권을 확보 및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상의 주요 작전기지가 적의 핵과 미사일 무기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해상 및 수

중 전력에 의한 보복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능이 개선된 독도함급을 억제 및 제2격(second strike) 전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쟁 초기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전쟁양상이 6·25와 같이 장기전화할 경우에도 성능을 개선한 독도함과 같은 함정의 역할은 한반도 통일 상황을 고려 시 중요한 역할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동급 함정은 한반도 주요 항구,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뿐만 아니라 유엔사 후방기지 등에서도 군수물자 등을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능이 개선된 독도함의 척수는 적어도 2척은 되어야 동해 및 서해에서 양동 및 상륙 작전을 감행하면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잠수함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이를 위해 항구에 있는 잠수함을 공격하는 개념 등을 병행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국문>

“중국, 해군굴기 박차... 초대형 강습상륙함 건조 착수”, 『세계일보』, (2017년 3월 31일).

“칼빈슨함, F-35B 스텔스기... 미군, 한반도 주변 전진배치” 『중앙일보』, 2017.4.4.
George Baer 저, 김주식 역, 『미국 해군 100년사』 (서울 : 해양전략연구소, 2005).
James Field 저, 김주식(윝김),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 (서울: 해양전략연구소, 2013).

<영문>

Captain Sukjoon Yoon, “Decoding China’s Maritime” *Proceedings*, Vol. 143/3/1.
E.B. Potter, *Sea Power : A Naval History* (Annapolis : US Naval Institute Press, 1981).

James Wiles, “Where are My Carriers,” *American Thinker*, www.americanthinker.com/articles/2011/03/where_are_my_carriers.html (검색일, 2017.4.3).

John Hattendorf, “What is a Maritime Strategy?” Royal Australian Navy, *Soundings* No. 1 October, 2013, www.navy.gov.au/spc (검색일, 2017.4.7).

Mark Shulman, *Navalism and the Emergence of American Sea Power* (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95).

Lisle Rose, *Power At Sea* (Columbia :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2007).

Thomas Roden et al., “Distributed Lethality,” *Proceedings*, No.1, 2015, <https://m.usni.org/magazines/proceedings/2015-01/distributed-lethality> (검색일, 2017.4.1).

U.S. Navy, “President Trump Visits Pre-commissioning unit Gerald R. Ford,” <http://navylive.dodlive.mil/2017/03/03/president-trump-visits-pre-commissioning-unit-gerald-ford-cvn-78/> (검색일, 2017.4.3).

Abstract

The Development of US Navy's Maritime Strategy and the ROK's Tasks with a Focus on the Roles of Aircraft Carrier

Kwon Young-Il*

Neighboring powers in the Korean Peninsula have started to develop and operate aircraft carriers or equivalent forces to cope with ris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also to show its national might.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has added a aircraft carrier from the 3rd fleet to western pacific theater of operation, whil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undergoing operational test of Liaoning as well as preparing for christening of its 2nd aircraft carrier. Japan is flexing its muscle as well by deploying Izumo capable of operating F-35B to Southeast Asia to participate in multilateral exercises starting this year.

It is a high time to know more about aircraft carriers or similar types in terms of maritime strategy and history. The U.S. has had by far the vast amount of experiences in utilizing aircraft carrier that it would be beneficial for us to examine U.S. perspectives and its appl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provide us with insights to understand and predict what it would be like in times of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erspective of aircraft carrier's involvement. This paper intends to show some aspects of future conflict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how the ROK Navy can best be ready for such situation. For research purpose, U.S. maritime strategy has been developed in stages ; establishment phase, WWI phase, WWII phase, Cold war phase, post

* Navy Commander, a working-level officer in charge of navy's foreign affairs at the ROK Navy HQs.

Cold war phase. Each phase includes such factors as threats, strategic concept, applications, and ways to improve maritime strategy.

Finally, the role of aircraft carrier based on past history as well as future conflict shines the importance to have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for the ROK Navy. The intrinsic nature of the navy in the world is to project power ashore just as history proved it.

Key Words : Maritime Strategy, US Navy, Cold War

논문접수: 2017년 5월 2일 | 논문심사: 2017년 5월 15일 | 게재확정: 2017년 5월 20일